고창군 ‘농식품 산업 특화’ 밑그림

5개년 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5가지 부문별 과제 마련

땅콩 고부가가치화·블루푸드 산업지원 센터 건립 등 수립

고창군이 김치산업 집중 육성 등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4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스마트 농업으로 행복한 미래를 짓는 농생명산업 허브, 고창’이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 ▲함께 사는 농업·농촌 고창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인재육성 및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5가지 부문별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고창 땅콩 고부가가치화 사업, 블루푸드 산업지원 센터 건립 등 고창의 농산물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고창 농업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농촌관광과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장어 잡고 댄스 경연…고창 갯벌에서 추억 쌓기

28~30일 심원면 만돌갯벌 축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갯벌테마 축제가 고창에서 열린다.

고창군은 28~30일 사흘간 심원면 만돌갯벌에서 ‘2024 고창갯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200여대 이상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고창갯벌길 건강걷기대회’, ‘갯벌 인생네컷 포토부스’,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잡기’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새우튀김, 동죽해물파전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와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하고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갯벌축제에서 관광객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김충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관광객이 만돌갯벌축제장에서 청정해안과 친환경 먹거리를 마음껏 느끼며 즐거운 체험, 신나는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장마 대비 농작물·시설 점검

농기센터, 배수로 정비·병해충 긴급 방제 등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히 오랜 가뭄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생육 불량, 병해충 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고추는 6월 초순부터 역병, 탄저병 발생확률이 높아지며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결정적인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마 전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랑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마 피해 대책으로는 배수 즉시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요소 0.2%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된다.

무, 배추는 호우에 따른 무름병과 밑둥썩음병, 과습·침수에 따른 뿌리 활력저하로 식물체가 고사하므로 사전에 고랑과 배수로 사전 정비로 장마기 습해 방지, 예방 위주 병해충 방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장마 피해 대책으로는 고랑·배수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강우 후 잎에 묻은 흙 오물 등을 분무기나 호스 등을 이용 씻어주며 병든 잎이나 열매는 제거 후 살균제 살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업시설물은 수방자재 장비를 미리 확보·비축하고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고정해 밀착해 피해를 예방하고, 비닐 교체 예정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를 주시해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가정용 LPG 용기 호스 교체 지원

고무호스 → 금속배관…노후화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 예방

정읍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LPG 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의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LPG 용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는 절단되기 쉽고, 노후화돼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575만원을 투입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 밸브인 퓨즈콕 설치를 지원한다. 또 압력조정기 교체와 차양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가구는 총 130가구이며,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000원으로 자부담은 5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7602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2021년부터는 취약계층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4개소 가스설비업체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빨라진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서류 없이 실시간 심의·확인

남원시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는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 인허가 협의의 경우 서면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민원실무심의’가 진행되면 심의부서에서는 종이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심의하고 민원인은 심의과정 및 진행상태를 남원시 누리집이나 민원처리 알림톡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시청내 회의실에서 복합민원 협의부서 및 인·허가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의과정 및 시스템 사용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도입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서 한국실업볼링연맹 대회 개막

7월5일까지 숲볼링장

남원시가 ‘남원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 실업볼링대회’를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남원 숲볼링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실업볼링연맹과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볼링연맹과 남원시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실업팀 300여명이 참가해 짜릿하고 시원한 명승부를 펼치게 된다.

경기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부터 남녀 개인전, 7월 1일 2인조전, 2일 3인조전, 3일 5인조전으로 진행된다.

4일부터는 결승토너먼트 및 마스터전으로 한국실업 최강자를 가른다.

특히 4일부터 5일까지 펼쳐지는 5인조 4강(결승)과 마스터즈 경기는 SBS SPORTS-TV 채널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되어 볼링인구의 저변확대와 전문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을 관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국볼링의 경기력과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대회가 펼쳐지는 만큼 스포츠의 명품도시 남원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우리 남원시도 오래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